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27일 수요일 음 11월 1일 (8물)

기상정보

흐림



제주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12-13℃, 낮 최고 기온은 13-16℃로 예상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for the next 5 days.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Table with daily and 5-day weather forecasts.

Table with air quality and UV index information.

월드뉴스

시리아 철수한다던 미군... IS 격퇴전 재개

美 "500명으로 대규모 작전"



지난달 31일 시리아 북부에서 이동하는 미군 차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에서 병력을 철수한다고 돌연 발표한 지 약 두 달 만에 미군이 이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시리아 철군' 결정이 참모의 설득으로 번복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군 중부사령부 케네스 F. 매켄지 주니어 사령관은 23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지역 안보 포럼 '마나마 대화'에서 취재진에 "앞으로 며칠~몇주에 걸쳐 ISIS(수니파 극단주의조직의 옛 약칭) 잔당 격퇴전의 속도를 북극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지 사령관은 재개되는 시리아 북부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투입할 미군은 약 500명이며, 작전 구역은 유프라테스강 동쪽 데이르예즈

한라일보 제주 대표신문.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건강&생활



박준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장

치매환자의 의사소통능력 저하는 환자와 가족들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언어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기억력, 판단력, 이해력 저하는 치매환자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감을 차츰 힘들게 한다.

치매환자와 소통하기

생긴다. "저것", "그것"과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사물 이름 대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표현한다. 치매가 진행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말할 수는 있더라도 의미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문장 이해력이 떨어져서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직접 얼굴을 보며 들은 내용은 이해하지만 전화로 들은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을 유지하면서 치매환자가 관심과 적절히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치매환자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하다. 치매환자와 대화 할 때 몇 가지의 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지킨다면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정서적 교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첫째,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것이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드럽고 감정적이지 않게 이야기 한다. 둘째, 대화 내용은 간단 명료해야 한다.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한 번에 한 가지만 말하고, 상대방이 이해하는 시간을 늘 충분히 줘야 한다. 셋째, 편안하고 조용하며 차분한 환경이 중요하다. 치매환자들은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다. 넷째, 말뿐만 아니라 시선이나 표정, 행동도 중

요하다. 치매가 진행돼 언어기능이 떨어질수록 환자는 비언어적 방법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다섯째, 환자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 환자와 논쟁을 하지 않고, 명령조로 지시하지 않는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영국의 요양 시설에서 지내는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하루에 2분도 안 되는 대화를 하는데, 매일 단 10분이라도 치매환자와 가족 및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고 불안감, 정신과적인 증상도 호전되며 돌봄도 개선됐다. 현재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환자이다.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누구나 경험할 운명이다. 치매환자와의 올바른 소통이야말로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해 치매환자의 품위와 자존감을 유지하는 돌봄과 치료의 첫 걸음이다.

열린마당

'제주도'를 세계 환경허브의 계기로



고은권 제주생명의숲 국민운동 공동대표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이 유네스코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확정됐다. 지난 6월 유네스코 사무국의 타당성 조사 시행, 10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통과에 이어 11월 1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쾌거인 것이다. 제주생명의숲 국민운동 회원 일동은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4대 국제보호구역으로 인증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환경허브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매우 뜻깊은 결과라 생각하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으로 등록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허승남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자동차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기름값, 수리비, 세금 등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자동차세는 활용하기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연납신청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이 부과된다. 보통 10만원 미만의 세액이 발생하는 차량은 6월에 1년치를 납부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1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이때 그 기간을 앞당겨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물

론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른수록 할인율이 높다.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점차 감면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단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1.3월에만 연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0cc급 중형차의 경우 대략 5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1월 신청으로 10% 할인이 적용되면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 1년치 자동차세를 예치하면 2%대 이자인데 연납은 10%이므로 4배 이상의 이차율 차이가 발생한다. 연납된 차량이 폐차 또는 양도를 했을 때는 사유 발생 이후 세액은 환부되며,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연납 사항이 통보되면 연납한 이 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ARS전화(1899-0341)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Advertisement for Hanra Telecommunications. Title: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Services include fiber optic, CCTV, and network solutions.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Title: 정보통신의 미래. Services include voice, network, and power solutions.

Advertisement for National Protection Fund. Title: 국제보청기프라자. Offers hearing aid product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Jeju City Government. Title: 제주시정 소식. Lists various public notices and events.